

- 1. 영생대도의 실천
- 2. 영생학의 보급
- 3. 영생문화의 창달

주님을 초초로 바라보고 고도로 사모하라. 나라는 존재의식을 초초로 죽이고 짓이겨라. 형제의 죄를 내 죄로 여겨라. 인류는 한몸 누구든지 내뿜어라.

普光

보광 13주년

보광 이해 못하면 구원과 인연 없어

2004년 6월 19일 조희성님은 보광(普光)하셨다. 승리제단은 큰 혼란에 빠졌다. 그 혼란을 대비하여 구세주 조희성님께서서는 미리 옥중에서 이영자 사모님을 해와주님으로 임명해 놓으셨다(아래 간증① 참고).

영생을 주장하던 구세주께서 육신을 버리니 이를 이해 못한 신자들이 이영자 사모님과 승리제단을 피고로 하여 사기죄 및 현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하여 경찰서를 수시로 다니던 이영자 사모님에게 구세주께서는 꿈에 오시어 구세주는 죽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 하였다고 말씀하신다. 구세주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다(2005. 6.15 452호 참고).

보광(普光)! 세인(世人)들이 승리제단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 가장 큰 부분은 구세주 조희성님의 보광이다. 영생을 주장하며 5대공약을 완벽하게 실현하여 구세주라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시다가 돌연 육신을 벗어버리니 신자들조차도 사기라고 말했던 보광이다. 그러나 이 보광을 이해하지 못하면 승리제단 교인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존재로 탈락하게 된다. 보광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해해 보자.

보광: 구세주께서 육신 벗고 하나님의 신으로 원시반본한 것

구세주의 보광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는 수많은 전략 중에서 한 가지 예언된 길(보광의 길)을 가신 것이다. 구세주의 소임은 인류를 전부 구원하는 것이므로 당신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바 격암유록은 인류 구원의 길은 절대 예정 될 수 없고 수시(隨時)로 다변(多變)한다(말론론)고 예언하고 있다. 당



조희성님 보광식당에 내린 감로이슬성신(왼쪽) 구세주는 불사체임을 나타내고 있다

신이 육신을 입은 채 구원하는 길을 가다가 마귀 세력의 저항이 강하므로 전략상 일부회피 및 기만전술을 쓰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한편 예언서라는 것은 구세주의 인류 구원을 위한 여러 전략을 기술해 놓은 것이므로 구세주의 보광도 예언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보광에 대한 예언

- 격암유록(생초지락 편) 聖初生壽神明出(성절생연신명출): 생명을 끊었던 성인이 신명(神明)으로 출현하신다. 분신(分身)으로 일을 하시는 것을 승리제단 교인들은 거의 다 체험하였다. 지금도 분신으로 천지공사를 하고 계신다.
- 이민제의 봉명서 2004년 보광 예언 “六十癸亥(육십계해)지나가고 庚回甲子成道(경회갑자성도)로다 二十一年甲申主星(이십일년갑신주성) 奎星回道太陽春(규성회도태양춘)을 五星取奎(오성취규)누가알고 ; 천간지지로 육십갑자가 100 회전하여 6000년이 되는 해에 60번째 계해(癸亥)년이 지나가고 다시 돌아온 대갑자년(1984년)으로부터 21년째인 갑신년(2004년)에 연성 중에 가장 밝은 별인 규성이 있는 길로 돌아오는 것은 태양 같은 광채를 발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날을 이루는 것이다. 오성이 모인 것을 누가 알까.” “二十一年甲申春(이십일년갑신춘)에 主星回頭太陽(주성회두태양)되어 ; 대갑자년(1984년)에서 21번째가 되는 갑신년(2004년) 봄 연성 가운데 가장 밝은 별인 주님의 별 주성(主星)이 두렵으로 회복이 되어 눈부신 태양 같은 하나님이다.”

구세주 육신 공동묘지 안장된다 세인(世人)들은 구세주께서 공동묘지에 안장된 것을 조롱하고 있으나 이사야 신지자는 구세주의 육신이 공동묘지에 묻힐 것을 예언했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

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6월 18일 마지막 면회를 끝으로 그 날 점심을 드시고 이재웅(박영에 남편)의 내용증명을 받아 보시고 바로 안양샘 병원으로 이송되어 보광하셨던 것이다. 어떤 자들은 구세주께서 환망하게 돌연사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하실 역할을 다 하신 후에 보광하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증언하는 것이다.* 김상욱(승리제단 전 회장)

보광의 길로 가는 주님

보광하신 후에야 주님은 당신이 보광 하시려고 승리제단의 조직체계를 완벽하게 만들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하라고 단호하게 지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광하신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당신이 보광하실 시점이 왔다고 생각하고 두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던 것이다. 그 당시 승리제단 신도들은 주님께서 무죄가 되셨으니 출옥하시어 다시 찬란한 구원의 역사를 힘차게 하실 것이라

간증②: 보광직전 꿈에 오신 조희성 구세주님

2003년 5월 어느 날 구세주 조희성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인 오창국 씨를 만났다. 살인교사에 대하여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였다. 조희성님을 접견하고 나온 오 변호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조희성님께서서는 무죄가 되었으니 상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이북(안양교도소)이 좋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검찰이 즉시 상고를 하였으니 그에 대하여 맞대응하려면 상고를 하여야 한다고 설득하였지만 완강하게 거부하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 변호사는 그 다음날 다시 설득해보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 오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오 변호사는 조희성님을 설득하여 상고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하면 대법원 관할인 서울구치소로 이감(移監)하시어 된다고 하니 조희성님께서 “나 거기 가면 죽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이라 회장과

서 끊어집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일에 개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이사야 53:8-9). 구세주님이 곤욕과 심문을 당하시고 끌려 다니시고 뺨을 얻어맞으시면서 그 분이 산 자의 땅에서 끊어져 보광하심은 분명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며, 구세주의 무덤이 악인들이 묻혀 있는 공동묘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에서 구세주는 죽지 않는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는데 죽은 육신은 공동묘지에 있다고 하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육신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기 때문이다. 구세주는 하나님의 신이고, 또한 하나님의 신은 무소부재하며 변신과 분신을 하시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육신은 수많은 구세주의 분신 중의 하나일 뿐, 그 분신 중의 하나인 육신이 공동묘지에 있다고 구세주의 본체(本體)가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큰 잘못이다. 구세주는 영생하는 하나님의 신이므로 불사체인 것이다.

승리제단 교인들은 현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조희성이라는 인간의 육신을 벗고 하나님의 신이 직접 구원의 역사를 하고 있음을 익히 잘 알고 있다. 구세주께서 육신을 가지고 계시 때와 똑같이 구세주 하나님의 증표인 이슬성신이 내리고, 향취가 나며 생수가 온 세계로 흐르고 있으며, 계속해서 이슬성신이 내리는 사진(성화)이 찍히고 있다. 그러므로 육안으로는 보지 못하지만 신령한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직접 하고 계신 것을 알 수 있다. 세인들도 이를 잘 이해하면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110)

“나무가 되어야 구원”

의인이 되면 완전히 나무가 된다. 나무란 감정이 없다. 나무의 사람이 되어야 영원무공토록 살 수 있는 것이지 동물적인 인간의 성품을 가지고는 영원무공토록 살 수가 없는 것이다.

자신을 이긴 자인 것이다. 상대방을 이긴 것이 아니다. 아무리 때리고 모함해도 그 마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일절 형제의 허물을 입에 담지 않고 묵묵히 형제의 사정을 내사정으로, 형제의 죄를 내 죄로, 형제를 내 주님처럼, 내 하나님처럼 여겼다. 그렇게 하니 완전히 자신을 이기게 되었다. 랑곳 하지 않는다. 이긴자는 바로 나던 것이다.*

나무의 사람이 된 사람은 옆 사람이 뭐라 하든 말든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옆 사람이 마음을 박박 끊어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이긴자는 바로 나

저력의 4지역 4개월만에 1등 탈환



이영애 4지역회장님 상금을 받고 있다

2017년 6월 6일 화요일은 본부제단의 2017년 5월 활동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다.

2017년 5월 성적은 저력의 4지역이 2017년 1월 이후 4개월 만에 거역이 지역 1등을 차지하였으며 5지역이 한계단 내려앉아 지역 2등을 차지하였고 3지역이 지역 3등을 차지하였으며, 요즘 강세를 보이는 6지역이 아쉽게 4등으로 내려앉았다.

안병천 승사가 개인 1등을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안명숙 승사가 승리신문 전도와 인도 점수를 합하여 개인 2등을 차지하였고 박인숙님이 개인 3등을 차지하였다. 구역 성적으로는 39구역이 1

등을, 25구역이 2등을, 55구역이 3등을 차지하였다.

윤봉수 회장은 “이 번 어버이날 절기성금은 본부제단이 140%를 달성하였다. 특히 6지역은 목표금액의 230%를 달성하는 엄청난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 길은 내 생각을 뛰어넘는 길이다. 내 생각이 살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생각을 뛰어넘어야 한다. 나라는 마귀와의 싸움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 지역 1등: 4지역(지역장: 박명하, 지회장: 이영애)
2등: 5지역(지역장: 박철수, 지회장: 신순이)
3등: 3지역(지역장: 김갑용, 지회장: 정은경)

- 구역 1등: 39구역(구역장: 박명하)
2등: 25구역(구역장: 정은경)
3등: 55구역(구역장: 안병천)
개인 1등: 안병천 승사
2등: 안명숙 승사
3등: 박인숙*

간증①: 보광 후를 대비하신 조희성 구세주님

접견시 이해 못할 일들

무죄가 되신 후 면회금지해 해제되어 첫 번째 접견을 갔을 때 “주님! 특별면회를 주신하셨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기뻐하시면서 “그래,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뜻밖에도 “필요 없어.”라고 하셨다. 잘못 들으셨나 싶어서 다시 “주님, 특별면회를 주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해도 여전히 나직막한 음성으로 “이젠 필요 없어.”라고 하셨다. 과거 7년 옥고를 치르실 때에 주님께서는 특별면회를 그토록 원하시고 원하셨다. 사실 특별면회라는 것은 법무부나 교정국 등에 상당한 줄이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서 “그 특별면회 하나 못하니?”라고 안타까워하신 적이 여러 번 계셨다. 특별면회를 하게 되면 독립된 사무실에서 소파와 책상을 중간에 놓고 마주 앉아서 주님과 마음대로 대화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지루한 감방생활을 하다가 특별면회시간에는 잠시나마 편안히 소파에 앉으셔서 당신의 자식들과 대화를 하면서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특별면회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이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

또 어느 날 면회 시 주님께서 나오시자마자 선 채로 “박태선 장로가 죽었다고 생각하니? 영모님은 안 죽었어! 그 정도 수준에 올라간 분은 사망권세 잡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라고 두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 다음날도 역시 나오시자마자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육의 가족들을 일일이 불러서 만나보셨다. 사모님을 비롯하여 형, 동

생 그리고 막내딸까지 다 만나보셨다. 이 세상을 떠나시려고 모든 것을 정리 하시는데 이런 구세주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이다.

마지막 말씀

2004년 6월 18일 주님께서 박덕용 사장과 김상욱 회장 둘이만 들어오라고 하셨다. 두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새벽 5시경 교도소로 갔다. ‘아마 공장과 제단을 위하여 무슨 특별한 말씀이 계신가 보다.’라고만 가볍게 생각하고 접견실에 들어갔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면회실에 나오시자마자 당신이 하실 말씀을 일방적으로 하셨다. “해와주님은 육적으로는 내 안 사람이지만 해와주님은 공인이야. 사사로운 개인이 아니란 말이야. 앞으로 인사 문제 등 모든 공적인 문제는 해와주님의 결재를 받아서 해와주님의 이름으로 발표를 하라.” “그리고 육적으로 내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제단에 안 나오는 사람은 우리식구가 아니야. 그러니 그런 사람 말은 절대로 듣지 마라. 공장은 해와주님의 지시만 받아라. 그리고 매사를 김상욱 회장과 상의해서 하라.”

그 외에도 제단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쪽 말씀을 하셨고, 또 내 생각에는 ‘몰출옥하시어 나오실 터인데...’라고 생각을 하며 접견을 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건성으로 넘겨들었다. 주님께서서는 일방적인 말씀을 다 하시고는 시간이 되어 그냥 접견실을 나가셨다. 접견을 마치고 나와서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진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 다음날 오 변호사를 다시 만났다. 오 변호사는 조희성님을 설득하여 상고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고하면 대법원 관할인 서울구치소로 이감(移監)하시어 된다고 하니 조희성님께서 “나 거기 가면 죽어”라고 하셨다는 말씀을 전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도무지 알 수 없는 말씀이라 회장과

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6월 18일 마지막 면회를 끝으로 그 날 점심을 드시고 이재웅(박영에 남편)의 내용증명을 받아 보시고 바로 안양샘 병원으로 이송되어 보광하셨던 것이다.

어떤 자들은 구세주께서 환망하게 돌연사 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구세주께서는 당신이 하실 역할을 다 하신 후에 보광하셨다는 것을 이와 같이 증언하는 것이다.* 김상욱(승리제단 전 회장)

시·민·초·청·강·연·회

천손민족사관으로 본 단군민족의 뿌리역사와 신문명 시대의 도래

“한민족 대통합의 역사와 인류가 하나되기 위한 시민초청강연”
“역사를 잊은 민족, 왜곡하는 국가에게 미래는 없다!”

주요 강연내용

- 국립 중앙박물관에 있는 고조선 시대 사용된 고대 히브리어 문양이 새겨진 와당의 실체?
- 메시아 정도령은 단군민족이 고대 이스라엘 12지파중의 하나인 단지파의 후예임을 밝혔다.
- 인간, 친화된 동물인가? 신의 피조물인가? 아니면...?
- 성경 창세기에 숨겨진 단군민족의 뿌리 역사를 밝혔다.
- 한민족을 통한 인류 구원의 역사.
- 한민족의 국혼을 되찾을 때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한다. [고대히브리어가 새겨진 와당]

- 강연일시: 2017년 7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 강연장소: 부천시 역곡3동 175-2, 승리제단 대강당
- 강연주제: ‘천손민족사관으로 본 단군민족의 뿌리역사와 신문명 시대의 도래’
- 주 최: 우리역사 바로잡기 운동본부
- 후 원: 승리제단, 국조승봉 총화국민회, 도서출판 해인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김중만(연륜출판사장)